●기형도의 시, 입 속의 검은 잎 (1989)

택시 운전사는 어두운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침묵하는 자의 삶이란 죽어 있는 상태와 다를 바 없음
이따금 고함을 친다, 그때마다 새들이 날아간다
이곳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
↳황폐한 현실, 불행의 공간, 공포의 공간('그 일' 이 언제 또다시 터질지 모르는)
나는 한번도 만난 적 없는 그를 생각한다
↳확실 속에 죽은 사람

그 일이 터졌을 때 나는 먼 지방에 있었다
↳80년 광주 민중 항쟁 ↳현실과 괴리된 공간
먼지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생명력 없는 지식과 생활
문을 열면 벌판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그 해 여름 땅바닥은 책과 검은 잎들을 질질 끌고 다녔다
↳헛된 말, 불확실하고 두려운 현실
↳관념적 행위-나약함 ↳죽음
접힌 옷가지를 펼칠 때마다 흰 연기가 튀어나왔다
침묵은 하인에게 어울린다고 그는 썼다
↳그는 자유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음
나는 그의 얼굴을 한 번 본 적이 있다
신문에서였는데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터졌다, 얼마 후 그가 죽었다

그의 장례식은 거센 비바람으로 온통 번들거렸다
죽은 그를 실은 차는 참을 수 없이 느릿느릿 나아갔다
사람들은 장례식 행렬에 악착같이 매달렸고
백색의 차량 가득 검은 잎들은 나부꼈다
나의 혀는 천천히 굳어갔다, 그의 어린 아들은
↳살아 남은 자-살아 남았지만 죽은 자에 대한 부채의식과 현실의 무력 앞에 숨죽이며 침묵하는 자
↳의식의 죽음, 침묵
잎들의 포위를 견디다 못해 울음을 터뜨렸다
그 해 여름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없어졌고
놀란 자의 침묵 앞에 불쑥불쑥 나타났다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부채의식
망자의 혀가 거리에 흘러 넘쳤다
택시운전사는 이따금 뒤를 돌아다본다
나는 저 운전사를 믿지 못한다, 공포에 질려
나는 더듬거린다, 그는 죽은 사람이다
↳택시 운전사와 '그' 의 환영이 겹침:화자의 공포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장례식들이 숨죽여야 했던가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서
그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어디든지
가까운 지방으로 나는 가야 하는 것이다
↳현실 참여 의지
이곳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
내 입 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 나는 두렵다
↳현실적 두려움과 침묵하는 자신의 무력감이 두렵다.

●핵심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비판적. 상징적
- ▶표현 : 입과 잎, 먼 지방과 먼지의 방에 나타나는 연상적 비유
- ▶어조 : 불안하고 강박적인 어조
- ▶구성-현재-과거-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적 구성
- ▶특징 : 시의 호흡을 빠르고 숨 가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표현함, 짧은 문장을 나열함
- ▶주제 : 표현의 자유가 없는 독재 치하에서 느끼는 불안감

●이해와 감상

기형도의 시들은 유년시절의 가난, 사랑의 상실,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 자본주의 사회의 물화(物化)된 인간의 모습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대체로 절망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그의 절망은 절망의 끝까지 가 본 자의 도저한 절망으로, 우리 시에서 보기 드문 풍경에 속한다. 이 시는 폭력적인 현실과 그로 인한 죽음, 공포의 삶을 고도의 상징적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다. 이 시는 분명히 알 수 없는 어떤 사건을 시적 동기로 삼고 있다. 그 해 여름, 화자가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그'가 '그 일'이 터진 지 얼마 후 죽었다. 거센 비바람 속에 거행된 '그'의 장례식 행렬에 사람들은 악착같이 매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없어졌다가 나타났으며, 망자의 혀가 거리에 넘쳐흘렀다. 그리고 또 어디서 '그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 사건은 80년대 중?후반의 시대상황과 관련이 있다. 정치적인 억압과 사회적 통제가 알게 모르게 강화되었던 당시, 권력에 반대하는 비판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시 속의 '그'와 없어졌다가 나타난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세력들을 뜻한다. 그들은 저항의 결과 혹독한 고통을 당해야 했는데, 죽음과 일시적인 사라짐-투옥-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침묵을 지킨다. 세계의 폭력에 그들은 굴복해 버린 것이다. '안개'와 '흰 연기'는 진실을 은폐하는 부정적인 현실을, '책'과 '검은 잎'은 관념적인 지식과 죽음의 징후들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화자 역시 방관자의 한 사람이며, 먼지 낀 책을 읽는 무력한 지식인이었다. '그 일이 터졌을 때 나는 먼 지방에 있었'고, '먼지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여기서 '먼 지방'과 '먼지의 방'의 발음-띄어쓰기의 차이만이 있는-과 의미-현실과 괴리된 공간으로서의-의 양면에 있어서의 유사성이 흥미롭다.

그의 죽음을 목격한 후 '나의 혀는 천천히 굳어갔'으며, '공포에 질려 나는 더듬거린다'.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놀란 자의 침묵 앞에' 용기 있게 실천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침묵은 하인에게 어울린다고 그는' 비판하며, 죽은 '그 때문에' '많은 장례식들이 숨죽여야' 한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나약한 방관자들은 부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중의 억압을 느끼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람들은 죽음과 폭력을 비굴한 침묵으로 방어하는 대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고 파편화되며 방향성을 상실한다. 택시 운전사와 그를 믿지 못하는 '나', '한번도 만난 적 없는 그'와 나는 서로 먼 거리에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다. 이제 나는 그가 누구인지,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대답해야만 한다. 어디서 '그 일'이 터질지 모르지만, 예전의 '먼 지방/먼지의 방'이 아닌 '어디든지 가까운 지방'으로 가서 현실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곳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다.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으로 암시되는 낯설고 황량하며 어두운 현실, '내 입 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 뜻하는 죽음과 굴복, 타협의 징후들이 끝없이 나를 두렵게 하기 때문이다.<최동호>

[출처] 입 속의 검은 잎(기형도)|작성자 아툼

이해와 감상2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힘들만큼 폭압적인 상황과 그 가운데서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자의 두려움과 공포가

생생하게 나타난 위 시에서 "그일"이란 80년 광주사건을 가리키며, "그"는 학살 속에 죽어간 자들을 암시한다. "벌판"은 황폐화된 현실의 "안개"는 그 현실을 감추는 허언의 은유이다. "그해 여름 땅바닥은 책과 검은 잎들을 질질 끌고 다녔다"는 구절은 "망자의 혀"와 사람들이 무더기로 없어졌다"는 구절을 통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조차 죽어가고 있음을, 책읽기를 대응 방식으로 삼은 "나"의 관념적 행위가 무력 앞에 나약하기 그 지없음을 아울러 의미한다.

따라서 "검은 잎"은 자연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을 가리키며, 동시에 내군은 "혀"의 은유인 "입속의 검은잎"과 연결되어 침묵하는 자의 삶이란 죽어있는 상태와 다를 바 없음을 뜻하게 된다.

이처럼 원인 불명의 죽음이 난무하는 곳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자신의 삶도 죽어가고 있음을 인지하는 "나"의 공포는 "택시운전사"가 "그"의 환영과 겹쳐지는 부분에서 극에 달한다. 그리고 "이곳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이라는 은유를 통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불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일'이 터질지 모르는 현재야말로 더욱 두려운 순간임이 드러난다.

비정상적인 불구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극한 상황에 대한 공포, 최소한의 은신처, 혹은 탈출구조차 부재하는 현실에 대한 공포가 위 시에는 가득 차 있다.

출처 : [기타] 도서: 새로 쓰는 한국 시인론(백년글사랑,2003)